

앞표지 안/ 뒤표지 안 무상예술

관음보좌 - 다용도 명상 의자/ 2003 해피 요기 여름 의상 컬렉션/ 아동복 컬렉션

2 스승님 말씀

신과 다시 연결되어 지상에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자

4 다채로운 이벤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캐나다/ 칠레

10 행사 메모

11/26 수행의 길목에서

무한한 은혜로 탕아를 되돌리다/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소리 로켓'

12 채식 시대

요코타 공군 기지에 상륙한 채식 바람/ 행복한 헌혈자 - 채식으로 빈혈이 나왔어요

14 전세계 채식 식당

미국 캘리포니아

14/33 저혜어록

지력을 활용해 행위를 잘 분석하라/ 영혼 그룹

15/22 스승님의 농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 사람이 아니야/ 신문 광고

1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은 사람의 무애자재한 마음

20 당신은 모르실 거야

새로운 성인(聖人) 이야기

27 신기한 감응

청정대해와의 인연/ 관음법문이 고질병을 고치다/ 신의 광명 속에 치러진 새해 선/ 천국의 암호/ 스승님의 천상의 목소리가 지친 영혼을 위로하다

34 골라 뽑은 수행문답

영혼의 동반자란 무엇인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야 하는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방법/ 무소부재의 경지에서는 영혼의 동반자가 필요 없다

36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사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어린 환경 일꾼

38 영화 이야기

믿음의 승리

39 수행 수상록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41 과학과 영성

우주의 비밀에 관한 뉴턴의 탐구

4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43 감로벌어

오직 수행만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없앨 수 있다

44 관음 웹사이트

45 전세계 연락처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DVD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고 나면 비할 데 없는 만족과 평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출판일자 : 2004. 2. 21.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5호**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신은 이미 우리와 지구상에 대단히 진보적인 조치와 시간을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선해야만 신의 은총 속에 이 발전하는 지구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과 다시 연결되어 지상에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자



청하이 무상사/ 1999. 5. 11. 폴란드 바르샤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7

날마다 나는 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사람들도 이 은총을 더 많이 깨닫고 있음을 느낍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기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나는 신이 지시하신 일을 내가 너무 느리게 처리해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도 합니다. 신은 더 빨리 움직이길 바라시지만, 육체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두뇌 또한 신의 은총과 같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신이 우리를 신의 자녀라고 하시고 부처도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들과 똑같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영광, 지혜, 행복, 지성, 긍정적인 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이 방법은 지금, 혹은 오늘 이후 언제라도 비용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여러분의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니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데 신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까지 돌보셔서 심지어 지각하면 깨워 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이런 빠박한 일정에도 이런 사소한 일까지 보살펴 주시는 신 때문에 때로 나는 감동에 겨워 울기도 합니다. 나는 늘 낯선 나라를 가고 대부분이 초행길이라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일이 태반이지만, 신은 항상 내게 좋은 호텔을 잡아 주고 중국 식당이나 어울락 식당, 혹은 가게 등을 가까이 안배해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굶주렸을 겁니다.

우리가 신과 다시 연결되기만 하면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앉아서 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이 소위 명상, 골방의 기도, 또는 신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으로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신과의 소리 없는 소통입니다. 신과 소통하고 나면 그 어떤 것에도 걱정이 없게 됩니다.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 전에는 일이 순탄할 때에도 나중에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을 놓지 못했지만 지금은 뭔가 잘못되면 기다리면서 관망합니다. 잠시 후엔 신께서 우

리를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일이 처음에 잘못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든 잠을 자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평화롭고 아무 걱정이 없으며 신의 크나큰 사랑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뒤에 있던 이 조악하고 거친 물질 세계를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동시에 또 다른 높은 경지로 올라가 그곳의 좋은 점을 얻게 됩니다.

신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도 애쓴 보람도 없고 불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물질에 너지는 아주 무거워서 늘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과 다시 연결된 후에는 더 높은 세계로 갈 수 있고 좀더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신의 지혜를 알게 되어 다시 내려왔을 때 좀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이 물질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면 내면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외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중 얼마 동안 즐길 수도 있고 좀더 숙달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때 “하느님은 나의 목자(牧者)이니 부족함이 없노라.”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과 다시 연결된 후에는 비할 데 없는 만족과 평화, 축복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천국의 삶과 이 물질적인 삶을 동시에 즐기기를 바라고 동시에 두 개의 세계를 갖고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신을 찾고 신을 알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신과 함께하게 된 것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무엇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자 신은 내가 원했던 것이나 원치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했지요. ‘이상하네! 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나는 신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먹을 게 없어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며 그 어떤 안락함이 없어도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당시 나는 하루에 한끼를 먹고 어딜 가든 달랑 옷 세 벌과 침낭 하나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바뀌어야 한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너는 천국뿐 아니라 지구상에서도 영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가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보살피는 아버지임을 알 것이다.”

나는 좀 하기 싫었지만 “좋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은 계속해서 아주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내가 못 다 쓸 정도로 말이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신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 내가 여러분을 보러 오고 싶으면 표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건 아주 좋은 거지요.

신은 이미 우리와 지구상에 대단히 진보적인 조치와 시간을 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선해야만 신의 은총 속에 이 발전하는 지구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새로운 발명과 편리한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질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과학의 온갖 새로운 발견물을 이용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식

스승님의 사랑이 식당을 천국으로 바꿔 놓다



[서울] 대한민국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수도권 비디오 강연회를 기획하고 6월 22일 서울에서 첫 번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수들은 가슴 벅찬 기쁨과 열정을 안고 엄청난 양의 전단지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인근 지역 곳곳에 행사를 알렸다.

그러나 행사일을 이틀 앞두고 강연장으로 예정됐던 대학측에서 갑작스레 장소 사용 불허를 통고해 왔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동수들은 인근의 한 식당을 강연 장소로 어렵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실내를 장식하고 스승님의 비디오를 틀자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매우 따뜻한 분위기로 고양되었고, 생각지도 않게 인근 손님들이 강연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강연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에 또 다른 스승님의 안내로 인해 옆 카페에서 강연장에 들어오지 못한 손님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줘서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강연회 도중 손님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소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원래대로 대학에서 강연회를 치렀다면 장소의 제한 때문에 방문객들을 더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던 이번 강연회는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 동수들과 손님들 모두에게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으며, 또한 많은 새로운 구도자들도 진리에 대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성과가 풍부했던 국제 도서전

2003 서울 국제 도서전

[서울] 대한민국 동수들은 2003년 6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린 연례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가해 참관객들에게 전단지과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고 스승님의 출판물을 선보였다. 그 중 초대형 TV를 통한 스승님의 강연 상영은 행사에 참가한 18만여 참관객 중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우리는 방문객들이 앉아서 비디오 강연을 볼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를 제공하며 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미 스승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부스를 방문하던 사람들이었다. 어린 아이 누구나 스승님의 모습을 보기 좋아했으며, 존경의 눈길로 스승님의 법상을 계속 주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형사자들은 부스를 지키는 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 준비를 도움으로써 모두들 스승님의 일을 통한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우리는 이 활동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곤 큰 감명을 받았다. 2003 서울 국제 도서전을 성공리에 치른 우리는 스승님의 끝없는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렸다!



공전의 기록을 세운 비디오 강연회!



[서울] 대한민국 동수들은 2003년 6월 13일 서울 관악문화회관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벅차 오르는 가슴을 가누지 못했다!

강연회에 앞서 우리는 수많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서울 남부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 지역에 배포하고 행사 소식을 많은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스승님의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은 매우 즐거웠다. 일하는 도중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포스터를 기념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트럭 운전자가 복음을 퍼는 일을 돕고자 자기 차에 스승님의 포스터를 붙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매우 기뻐했다.

강연회 당일 유난히 청명한 하늘은 구도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듯했다. 강연회장이 유명한 산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산 가방을 멘 채 우리 강연장을 찾기도 했다. 또 강연장 오른쪽에 위치한 절에 다니는 많은 신도들이 '즉각개오, 일세해탈'이라는 두 눈이 번쩍 뜨이는 포스터 제목을 보고 강연장을 찾았다.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손님들 때문에 강연장 1층이 곧 만석이 됨에 따라 뒤에 온 손님들을 2층으로 안내하면서 결국 수백 명의 참석자를 받게 되었다.

강연장인 관악문화회관은 주로 전문 공연을 위해 지어진 신축 건물로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스승님의 만세등과 그림을 아름답게 장식한 로비에 '평화의 음악-하나 된 세상' 자선 콘서트의 음악이 공중에 퍼져 나가자 강연장 전체가 고양되고 행복한 기운으로 충만해졌다.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 구도자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내용과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스승님의 답변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강연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백여 명가량이 방편법을 배우고 일부는 입문을 신청했다. 방편법을 전수받은 수행자들이 예리한 질문을 많이 제기해 질의응답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 웹사이트에서 이 행사를 알고 찾아와 방편법까지 배우게 된 한 참석자는 "스승님의 강연은 실로 감동적이었으며,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깨달은 스승이십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역대 강연회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번 관악문화회관 비디오 강연회는 스승



님의 축복 속에서 매우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모두에게 큰 힘을 심어 주었다.



인도네시아 소식

천상의 빛이 메단을 밝게 비추다

[메단] 2003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복수마트라 메단에서는 상업 박람회가 열렸다. 수년간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느껴 온 메단 동수들은 이번 기회에 이 귀중한 법문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했다.



박람회에 앞서 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메단 가(街)에 현수막을 걸어

우리 부스를 알리고 신문사 두 곳에 광고를 내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많은 자료와 견본책자를 배부했으며 많은 구도자들이 방편법을 배우러 왔다.

이제 우리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궁극의 해탈 법문인 관음법문과 인연이 닿아 완전히 깨달으신 스승의 인도 속에 '천국의 빛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길 희망해 본다.



태국 소식

태국 및 이슬람 음식 박람회에서 영성의 음식을 제공한다

[방콕] 태국 동수들은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방콕 국제 무역 전시관에서 열린 태국 및 이슬람 음식 박람회에 참여해 부스를 마련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온갖 산해진미를 선보인 수많은 부스들 중 우리 부스는 유일하게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을 상영해 방문객들의 영성을 고양시켰다.

이틀간의 행사 기간 중 많은 방문객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기 위해 부스를 들렀다. 그 중 한 중년 남성은 1시간가량 비디오를 본 후 “이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말 멋지군요!” 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는 그후 우리 부스를 다시 찾아와 비디오



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다 보고는 견본책자를 받아 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다.

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는데, 그 중 견본책자를 얻으러 온 한 미얀마인은 나중에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견본책자



를 받아 가도록 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이번 태국 및 이슬람 음식 박람회 활동은 매우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차원을 고

양시킬 가르침을 널리 퍼도록 기회를 주신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문화 박람회에서 꽃을 피운 깨달음의 메시지

[샌프란시스코] 2003년 6월 8일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열린 제26회 하이트 거리 박람회에 참가했다. 많은 참관객들이 유명한 하이트 거리를 방문해 대체요법, 의류, 음식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부스들을 참관했다. 우리는 이날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수천 장의 전단지(傳單)를 방문객들과 행인들에게 배포했다.

놀랍게도 우리 부스를 방문한 많은 방문객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스승의 인도 없이 혼자 명상을 해 왔던 한 남자는 견본책자를 읽고 즉시 계란을 비롯한 육식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방편법을 배웠으며 현재는 신실하게 입문을 기다리고 있다.

동수들은 또 이곳 공중파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갖게 되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이 방송국의 여성 경영자는 지역 사회에 대한 하이트 거리 행사의 유익함을 알리고자 했는데, 우리 부스를 그 대표적인 이로써 단체로 선정해 특별 인터뷰를 갖고 스승님과 수행법, 우리 단체와의 연락 방법 등을 취재했다.

하이트 거리 행사는 스승님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에게 그 가르



즐거움 웃음으로 빛나는 '해피 요기'의 얼굴들.



세계의 의식 고양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성의 꽃이 활짝 피다.

침을 전하는 또 다른 고양된 행사였다. 이 '다채로운 박람회'에서 열망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와 빛을 가져다 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화교 운동회의 축복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2003년 6월 20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화교 운동회(CAAT) 측의 초청을 받아 쿠페르티노 시(市) 디 안자(De Anza) 대학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가했

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사자춤과 북으로써 경기 시작을 알리고 또 다른 전통 춤으로 흥을 돋웠다. 개막식에는 80여 단체가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SM 로고가 새겨진



해피 요기 티셔츠를 입은 동수들이 천천히 입장하자 중국어와 영어로 스승님과 우리 단체가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내빈들은 스승님과 협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샌프란시스코 주재 대만 경제문화 사무소장 로버트 린 씨와 비서 데이비드 치엔 씨는 특별히 우리 부스를 방문해 사스 위기 때 포모사에 의료용 마스크를 다량 지원해 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베이 에어리어 CAAT 개막식은 참가 동수들 모두에게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 언론 매체에 스승님과 그 가르침을 알리는가 하면, 산호세 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센터는 협동 단결의 정신을 발휘해 짧은 시간 안에 음식 부스를 준비하고 개막 행진에 참여했다. 이 모든 것은 다년간 선 행사를 통해 행사 조직과 효율적인 일 처리를 가르치신 스승님, 그리고 동수들의 수행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진 야유회에서 산호세 채식 식당은 이 행사의 주요 스폰서를 맡



아 우리 부스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제공했다. 동수들은 식당 전단지과 식당에서 열릴 비디오 강연에 대한 전단지를 관심 있는 손님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명한 채식 식당과 강연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 뉴욕 소식

몸과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다

[뉴욕] 2003년 6월 28일 토요일 뉴욕 시 링컨 센터의 담로슈 공원에 서는 이 지역의 많은 채식 식당과 건강 식품점, 동물 보호 기구, 수행 단체 등이 열성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건강 식품 시식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의 한 가지 특색은 온갖 동서양 음식이 완전 채식으로 선보였다는 것이다. 뉴욕 센터 동수들도 부스를 마련해 이국적인 풍미의 채식 요리를 제공하는 한편 스승님의 각종 출판물도 함께 전시했다.



번잡하기 짝이 없는 뉴욕 대도시에서 사는 동수들은 시간을 내어 이번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많은 이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심지어 대여섯 살 된 동수들의 자녀들까지 기쁘게 전단지 나눠 주는 일에 동참했다. 아이들



한 동수의 자녀도 작업 팀에 합류해 즐겁게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있다.

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많은 서양인들이 “아가, 나도 한 장 주련?” 하고 요청하곤 했다. 우리 부스가 마침 운 좋게도 행사장 입구 쪽에 위치한 덕분에 오가는 많은 이들이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과 인연을 맺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방문객 대다수가 채식주의자이거나 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행사 분위



기는 매우 영적이었으며, 스승님의 책자를 받아 가는 각계각층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뉴욕 센터는 인연 있는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알 수 있도록 2주 후 비디오 강연회를 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단지에 담았다.

2003년 7월 13일 뉴욕 동수들은 앞서 계획했던 홍법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행사 한 시간 전부터 신실한 구도자들이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입문에 대해 묻기도 했다.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온 한 여성은 스승님의 큰 가피력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찍 떠나야 했던 그녀는 대신 연락처를 남기고 다음 강연회가 열리면 꼭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 딸과 함께 강연장을 찾은 한 여성은 딸과 함께 방편법을 배우고는 스승님의 책이 매우 마음이 든다면서 스승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혜로 가득 찬 느낌이라며 전신된 경서 몇 권을 구해 갔다. 일주일 후 그녀는 방편법 단체명상에 찾아와 그 일주일 새에 내내 스승님의 진동을 느꼈다고 얘기했다. 20여 년 동안 채식 해 온 한 60대 할머니는 이렇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입문을 간절히 원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일들로 인해 동수들은 세계 최대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인 뉴욕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



는 큰 힘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은 영성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해탈을 얻고 천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살아 있는 성인이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



[토론토] 2003년 7월 13일 토론토 동수들은 캐나다 노스욕 시청의 중앙 도서관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갖고 인도, 스리랑카, 포르투갈, 중국, 어울락 등 다양한 나라의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강연회 중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영적 가르침과 세속의 경지를 초탈한 예술 작품에 매료되었으며, 강연회 내내 경외감이 감돌았다. 고요하고 기쁨 어린 분위기 속에



서 참석자들은 수행 질문에 대한 스승님의 답변에서 보이는 유머 감각에 유쾌해하며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열중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청중 가운데 4분의 3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한 남자는 방편 명상 시간이 끝난 후 감사하다는 모습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며 훌륭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다른 많은 참석자들도 강연장을 떠나면서 동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무아의 헌신에 대한 스승님과 동수들의 무수한 본보기, 그리고 이러

한 행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봉사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관음법문이야말로 세상에서 살아 있는 성인이 되는 가장 훌륭한 법임을 잘 보여 준다!



칠레 소식

빈곤 가정에 물질과 영성의 도움을 준다

[산티아고] 최근 산티아고 센터 동수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가정에 양식을 준비해 전달했다. 이 가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처한 극도로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는지 알게 되었다.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는 또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료도 전달함으로써 이 활동을 보다 뜻 깊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이 가족들은 이제 신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삶도 변모하게 되었다. 칠레 동수들은 이런 아름다운 일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



사드리는 한편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어려운 가정들을 계속 도와 나가기로 했다.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무한한 은혜로 탕아를 되돌리다

마제네스타 쿠스틴 사형/ 호주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스승님의 은총으로 나는 입문한 지 3년 반이 지난 최근에서야 한 가지 깨달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전에는 나의 외부 생활이 화려하고 즐겁긴 했지만 명상하기가 어렵고 좌절감을 느끼곤 해서 마음이 매우 공허했었다. 그때는 특별히 스승님을 뵈려는 마음도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신의 뜻이라면 그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입문 초기에 나는 나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게으르고 비생산적이며 오만하기까지 했던 나는 에고로 인해 비판적이고 천박하고 신실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런 점들이 내 안 깊숙이 침투하고 난 후 나는 비로소 끔찍한 생각이 들었고, 수없이 공허한 생을 거친 끝에 얻은 이 입문이라는 신의 선물을 낭비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나는 스승님의 잡지나 비디오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수준 낮은 에고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에고를 놓아야만 관음을 통해 나의 진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단 이 점을 깨닫게 되자 나는 나의 '위대한 유산'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스승님의 귀하기 이를 데 없는 가피력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면서 마음이 열리고 기쁨에 넘치게 되었다.

마치 돌아온 탕아처럼 나는 한때 길을 잃고 헤맸으나 결국에는 스승님에게 발견된 것이다. 스승님은 나를 다시 찾아내어 당신의 사랑과 은총, 자비와 용서로 감싸 주셨고 내 삶을 바꿔 놓으셨다. 지금 나는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꼭 차 있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스승님께 한 발자국 내딛기만 하면 스승님은 내 쪽으로 세 발자국 다가오실 것이다.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스승님은 내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셨고, 내

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더욱 의미 깊어졌다. 나는 이 삶의 목적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생활에 대해서도 더 큰 믿음이 생겼으며, 이를 통해 나의 삶은 보다 여유로워졌다. 나는 새로운 에너지와 결단력, 자신감이 생겼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스승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지금은 낮에 해변을 거닐 때나 요리, 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도 오불을 외우며 신을 깨닫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으로 충만해 있다.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눈먼 나의 눈을 치유해 주셨다. 보기를 거부하면 볼 수가 없는 법이다! 부정적인 힘은 때로 내 삶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면서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틈새를 파고들어 큰 균열을 만들어 내고 다시 이 균열을 큰 협곡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호전되어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믿음이 확고하며 빛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겸허하게 스승님의 발밑에 엎드려 무조건 복종한다. 신의 뜻대로 신성한 은총 속에 흠뻑 잠길 수 있도록 말이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스승님의 이름으로 할 때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것이 진리임을 안다.

아래의 글은 나의 새로운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당신이 부르시면 올 것이요,
당신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마다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그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일식 채식 요리 시연회.

일본 도쿄 뉴스그룹



2003년 6월 7일 도쿄 센터 동수들은 요코타 공군 기지에서 두 차례의 채식 파티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도쿄 센터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채식을 소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요코타 공군 기지에는 1,400명 가량의 미국인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들이 2, 3년마다 세계 각지로 옮겨 다닌다.

첫 번째 파티는 6월 7일 한 동수의 집 넓은 정원에서 열렸다. 행사 전후로 며칠 동안 거의 비가 왔었지만 행사 당일만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이에 내빈들은 “이 무렵 도쿄는 우기인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하고 한마디씩 말을 건넸다.

파티에 참석한 수많은 미국인들은 채식 음식이 이토록 맛있다는 데 놀라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요리법을 물어보면서 나중에 요리 강습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는 채식 음식의 맛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식 요리의 간편함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손님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6월 21일 두 번째 파티를 계획했다.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하던 중 우리는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포모사 비디오 팀의 일원에게서 예기치 않은 연락을 받았다. 비디오 팀이 일본 채식 요리 특집을 제작하려는 구상을 갖고 이번 행사를 녹화하기 위해 일본에 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호주의 한 사형이 일본에서 머물 장소를 묻는 전화가 왔다. 이 사형이 도착해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준 덕분에 우리는 이번 파티에 쓰일 초대장과 자료들을 제때 인쇄할 수 있었다. 또 비디오 팀이 비디오 카메라를 조작할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마침 이 사형이 미국에서 비디오 제작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기꺼이 파티와 시연회 촬영을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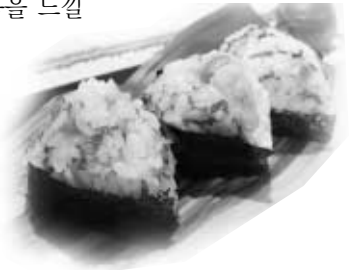


행사 전날 군마와 도쿄에서 온 요리사와 인테리어 팀들이 요코타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법이라도 부린 듯 밤새 미국식 거실을 일본식 주방으로 바꿔 놓고 일식 채식 진미들을 차례차례 만들어 냈다. 오후 늦게 촬영을 시작한 포모사 비디오 팀은 밤새 촬영을 진행해 다음날(토요일) 동이 틀 무렵에는 12가지 채식 요리법 시연 촬영을 다 마칠 수 있었다.

6월 21일, 날씨는 놀랍게도 또 다시 청명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요리 시연회였다. 포모사 비디오 팀은 알찬 TV 프로그램 내용을 위해 전 과정을 촬영했다. 일본 사저

들은 요리 솜씨를 발휘하면서 내빈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참석한 미국인들은 요리에 매우 만족해했고, 많은 이들이 음식이 맛있다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또 언제 다시 이런 파티를 열 것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두 차례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의 손길이 행사 전반에 고루고루 미쳐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번째 파티는 두 번째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것 같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신이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는 말을 실제로 체득할 수 있었으며 신의 뜻에 따라 일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썸 TV '예술과 영상' 제45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원문 영어+중국어 자막)



행복한 헌혈자 - 채식으로 빈혈이 나았어요

이장평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7월은 내게 행운의 달임에 틀림없다! 10년 전 나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입문을 함으로써 영혼이 거듭났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내 몸은 매우 건강한 상태다. 입문 후 계속하고 있는 채식은 나의 빈혈까지 치료해 주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걸음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허약했다. 갑자기 일어서면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는데 병원에서는 건강 진단서에 '영양실조', '빈혈증'이라고 기록하곤 했다. 젊었을 때 몇 번이나 헌혈을 하

려고 했지만 적혈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최근 불일을 보러 나갔다가 헌혈 차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포모사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헌혈을 시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혈구 세포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안락의자에 누우면서 나는 간호사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는 채식을 해요! 고기를 먹었을 때는 빈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채식을 하고 나니 이제 빈혈이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채식을 하면서 빈혈이 사라진 것 말고도 기관지염도 없어지게 되었고 내이(內耳)의 평형 불균형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사라졌다. 이제는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관절염이 가끔 불편한 정도라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한 바퀴씩 돌았다. 그리고 날씨가 좋고 시간이 허락하면 한번에 공원 두 곳을 돈다.

이렇게 2년을 하자 걸음이 날아갈 듯해졌을 뿐 아니라 나의 고민이



있던 축 처진 살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보면 몇 년 전에 보았던 유제품 광고가 생각난다. 그 광고에서는 금발 미녀가 우아한 몸매를 과시하면서 외국인 억양으로 “저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XX 탈지분유를 먹지요.” 하고 말했었다. 지금 나도 그녀의 포즈를 흉내내며 말할 수 있다. “저는 채식을 해요. 그리고 관음법문을 수행하지요!” 못 믿겠다면 누가 더 빨리 걷는지 나와 시합해 보면 안다. 누가 감히 채식하면 영양이 부족하다고 말한단 말인가!

전세계 채식 식당

미국 캘리포니아

Vegan Tokyo Teriyaki

주소: 2518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 90007, USA
전화: 1-213-747-6880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전세계 채식 식당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지혜어록

지력을 활용해 행위를 잘 분석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2. 4. 25.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43

우리가 수행의 진보를 거두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결점이 있는지, 일을 논리에 어긋나게 처리하진 않았는지 매일 분석하고 자신을 검토하는 거지요. 만일 부당하게 처리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지력을 잘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일할 때 세심하게 분석하지 않은 건 아닌지, 혹은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자신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난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동의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다 받아들이니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두뇌는 매우 훌륭합니다. 개개인의 두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불은 지력을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잘 이용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잘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조차 명확히 분석한 다음에 믿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이치에 합당해야만 믿어야 한다면서 매우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예로 들어 제자들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든, 낡은 생각이든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하고 너무 문제가 많고 복잡하며 우리나라 다른 이에게 이롭지 않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청하이 무상사/ 2000. 5. 9. 한국 영동 국제 선육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96

한 백만장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그의 세 아들과 네 딸들은 복도를 왔다갔다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병실에서 나오자 모두들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이군요!” “나쁜 소식이라고요?” 이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분은 앞으로 오랫동안 사시겠더군요!”



그 사람이 아니야

청하이 무상사/ 2002. 5.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7

한 부부가 저녁 식사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조금 모자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지요. “당신 친구가 두 조각을 먹고 나면 더 이상 권하지 말아요. 알았죠?”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두 조각 다 먹었을 때 남편은 그만 깜박 잊고선 평소처럼 권했습니다. “오, 좀더 들게나. 내가 부엌에서 더 가져올게.”

이에 부인의 얼굴이 잔뜩 굳어지자 친구는 “아니, 괜찮아.”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권했고 부인의 표정도 텅달아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더욱더 확실히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다급한 어조로 “아니, 괜찮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돌아간 후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마구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두 조각을 먹고 나면 더 이상 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권하다니. 이제 없다고 했어야죠!” 남편은 “미안해, 완전히 잊어버렸지 뭐야.” 하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렸다고요? 하지만 내가 식탁 밑으로 발로 찼잖아요. 그럼 눈치를 찾아야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발로 찬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불쌍한 내 친구였던 거지!”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45/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5/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5/jk1.htm> (미국)



때달은 사람의 무애자재한 마음

칭하이 무상사/ 1988. 9. 24. - 2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MP3-3

내가 왜 여러분에게 신통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신통력이 있어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인과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요? (어떤 사람: 예고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진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자는 예고를 가져선 안 됩니다. 예고가 있으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직도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사 윤회를 합니다. ‘개인’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인과, ‘개인’의 응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분리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며,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런 경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놓아 버립니다. 아프면 아프고 비에 젖으면 젖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고 비가 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 현상에 지나지 않으니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센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침시다. 하지만 어떤 곳에는 바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비를 싫어하지만 농부들에게는 농사를 짓기 위해 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좋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그때 마침 비가 필요한 곳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신이라 해도 모든 중생의 요구를 완전히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어떤 이는 햇볕이 나기를 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강한 바람을, 어떤 이는 눈을 좋아하니깐요. 눈이 내리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싫어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채소도 못 키우고 생활도 어렵고 혹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이라 해도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까?

옛날 중국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아름답고 두꺼운 털옷을 입은 채 궁전의 발코니에 앉아 바람을 바라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와! 눈이 내리니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그는 너무도 좋아하며 신께 더 많은 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앉아 눈을 감상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신하가 와서 많은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보고했지만

왕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눈이 아주 아름답게만 느껴졌던 거지요! 궁전에는 난방 설비가 잘되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그는 두툼하고 좋은 털옷을 입고 있었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하지요!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보리

이 세상의 희로애락은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린 중생들의 느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밤에만 비가 내렸는데도 여러분은 텐트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벌써부터 당황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볼 수 있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비가 오면 좀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음에도 여러분은 이 비를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스승님 웃음) 그러니 삶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손톱만큼의 행복도 받지 못하며 웃을 만한 일도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떨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자비심을 키울 기회를 주신 신과 불보살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불행할 때 자비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자신이 왜 돌처럼 단단한지 반성해야 합니다! 행복할 때 역시 자비심을 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더더구나 자비로워야 하며, 누군가가 매일 우리만큼 불행하거나 우리보다 더 불행하리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행주좌와(行住坐臥)가 선(禪)’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비심이 곧 선(禪)이며, 우리의 사랑이 곧 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자비심을 잃는다면 우리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은 바로 이런 것으로서 어떤 고정된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할 때 우리는 내면의 빛을 관하고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빛과 소리에 내면의 가장 높은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리와 교류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빛이 아름다워서 빛을 봐야 한다가나 소리가 아름다워서 소리를 들

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자비와 박애는 우리의 이기심과 오만함, 선량하지 않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일종의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등의 약이 없다면 우리의 탐진치(貪瞋癡)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명상이 부족하고 수행도 부족하면 불보살은 우리가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병이나 재난, 고통스런 상황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등한 약으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보다 낮은 차원의 약을 써야만 하는 거지요. 한약을 싫어하는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하듯이 말입니다. 만약 환자가 양약마저 싫어한다면 병이 위중한 경우엔 수술을 해서 ‘잘라 내야’ 만 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한약을 먹어 천천히 회복할 수 있지만, 병이 좀 심각한 경우엔 서둘러 양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이 편이 빠르니까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병세가 정말 위중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죽어서 이 몸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몸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을 견딜 힘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보살과 신께 인내심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최고의 경지로서, 그냥 참고 불평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그대로 보지요.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초탈해 있습니다. 희로애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집착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을 경험하지만 마치 방관자처럼 한쪽에서 다른 이들의 희로애락을 보듯 하며 이 감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이 내키면 보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TV를 볼 때처럼요. 또 오디오테이프를 들을 때와도 비슷합니다. 슬픈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그 테이프를 틀고 이젠 됐다 싶으면 재빨리 다른 테이프를 트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희



로애락은 우리에게 보리(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희로애락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상호 작용을 해야 하니까요. 거울과 같은 거지요. 거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은 추한 대로 보여 주고 예쁜 얼굴은 예쁘게 보여 줍니다. 만약 여러분 머리에 뿔이 두 개 달렸다면 뿔 두 개를 보여 주고 송곳니가 길면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거울은 울긋불긋 화장하거나 송곳니를 숨기거나 뿔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거울로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춰 줄 뿐입니다. 수행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희로애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희로애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에게는 희로애락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웃고 싶으면 바로 웃고, 울고 싶으면 바로 읍니다. 좀 전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도 즉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괴로운지, 행복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좀 전까지 울면서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지금은 웃으니까요. 그는 희로애락이 자유자재합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에 구속받지 않으며 때로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희로애락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제공활불(자유자재하고 깨달은 스님으로 입적 후 성인으로 널리 숭배됨.)의 경우 신통이 대단하고 매우 자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며 ‘미치광이 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는 미친 척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것 역시 ‘그런 척’한 것이었어요. 그는 전혀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다니요! 그가 고기를 먹은 증거를 찾으려던 사람들은 그가 뜯고 있던 갈비를 잡아챘지만 잡아채고 보니 호리병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싶더니 돌아서면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웃음) 고기는 한 점도 보이지 않았지요!

우리 범부는 대수행자들의 행동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하

는 것입니다. 큰스승이 내려와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점을 보지 못합니다. 또 작은 스승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지요. 어떤 이들은 나를 따라 배운 지도 오래됐고 한동안 나와 함께 살기도 했지만 내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행도 하지 않고 겉보기엔 나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이 다르지요!



신통력은 에고를 부주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신통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통력이 있으면 반드시 에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다면 에고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비가 와서는 안 된다. 비야, 그쳐라!’ 하고 말해서 비가 당장 그친다면 여러분은 아주 기뻐하고 손뼉을 치며 환호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루 종일 나에게 기도할 겁니다. “스승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스승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더 낭만적이잖아요! (대중 웃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안에서 듣고 있으면 멋집니다. 더 시원하고요.” 그러면 나는 햇볕을 요구했다 비를 요구했다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들을 처리하느라 온종일 분주할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지요! 게다가 나 스스로도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즉시 여러분이 보는 자리에서 해내니 나의 에고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지겠지요.

참 스승의 에고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에게 이런 소소한 신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해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런 작은 신통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대신 큰 도리로서, 큰 논리로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왜 믿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그는 ‘홀라홀라 합’ 하는 방법으로 써 중생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많은 마술사나 무당들이라도 할 수 있으며 서커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들은 진짜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이를테면 히말라야에서도 오렌지를 얻을 수 있지요. ‘홀라홀라 합’ 하고 주문을 한번 외우면 오렌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루해지지요.

이런 것을 물질화시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고를 키우고 해탈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힘을 낭비시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력(靈力)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자신들의 에너지를 사바 세계에서 다 써 버린 탓에 삼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예로 들어 보지요. 비행기는 얼마만큼의 연료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날지 않고 활주로만 왔다갔다하거나 낮은 고도로 에어쇼를 하듯 천천히 돌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연료가 바닥나 추락할 것입니다. 목적지에는 도착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시간과 호흡의 횟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성불할 시간 또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에너지를 부지런히 수행해서 성불하는 데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불장 다 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확실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쉬엄쉬엄 수행해서 될 게 아닙니다. 느장을 부려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경우엔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으니 그나마 낫지요. 그러므로 지금 어서 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한 자리에 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잠시 후 어두워지면 길도 보이지 않고 연료도 떨어져서 아주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습니다!

내가 신통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공연을 보여 주느라 자신의 ‘연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 우리가

추락하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를 어느 누가 하루 종일 서서 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료’가 떨어지고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시체는 한쪽에 누워 희고 검은 반점들로 뒤덮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조차도 하루 종일 안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혹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 해도 여러분의 시체를 빨리 묻어 버리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날 테니까요. 설령 여러분이 생전에 비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고 다니는 등 백만 가지 신통이 있었다 해도 죽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신통력을 권하지 않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에서 해탈하고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통력을 가지고 놀고 있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신통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홀라홀라 합!’ 하고 놀며 오불 외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과 에너지도 헛되어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안에 집중해서 영혼이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오늘 할 수 없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십시오! 내일도 할 수 없으면 모레 또 해보고요. 매일 시도해 보십시오. 새끼 새는 막 태어났을 때는 날지 못합니다. 조금 날다가 곧 떨어지지요. 하지만 매일 연습해서 얼마 후에는 날게 됩니다. 봉새(鵬-아라비아, 고대 중국 등의 전설적인 새)도 그렇습니다. 제아무리 봉새라 해도 태어나서 바로 날 수는 없습니다. 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새가 어릴 때부터 새장 속에만 갇혀 있다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여러분은 매일 시도하고 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聖人) 이야기

미국 플로리다 센터 장주 (원문 영어)

지구의 정화

2003년 초 지구는 대변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발발했지만 지구는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큰 은총으로 대규모적인 정화를 거치고 있었다. 이 정화가 시작된 것은 2002년 크리스마스 국제 선에서였고, 당시 2천여 명의 동수들은 5일 동안 침묵 속에서 명상했다. 스승님은 당신이 '우리 단체를 정화하고 있다'고 밝히셨으며 선이 끝난 후에는 한 동수가 상당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셨다.

스승님은 선 기간 동안 제자들을 돌보시는 한편 플로리다 센터의 보수 공사와 건물 재배치 등 힘겨운 일에 착수하셨다. 스승님은 공사 전체를 총감독하시면서 작게는 우리가 사용한 나사와 못 종류까지 일일이 검사하셨다. 일년 중 가장 추운 날에도 스승님은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하셨다. 원래 이 기간은 쉬시면서 선 행사 동안 수집한 무수한 업장을 씻어내게 되어 있었지만, 몇 주에 걸쳐 스승님의 침실 옆방에서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스승님은 제대로 쉬실 수 없었다. 스승님은 종종 망치질과 드릴,

전기톱 소리 속에서 아침 명상을 하시곤 하셨다. 일꾼들이 공사판처럼 스승님의 침실을 통과해 다니며 구석에 깔끔히 개어져 있는 스승님의 옷들을 보기도 했지만, 스승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다니곤 하셨다.

2003년 2월 20일 스승님은 나흘 전에 당신의 수행이 보다 높은 경지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밝히시며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셨다. 그리고 2월 24일 새벽 2시에는 시후 센터에 전화를 걸어 큰 희소식을 전하셨다. 바로 일부 장주들을 비롯해 많은 우리 관음 가족들이 불퇴보살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시는 동안 스승님은 서류 봉치를 계속 훑어보시면서 최근 몇 주 간 계속 통계를 내셨는데, 수시로 내면의 소식이 와서 보이는 대로 적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 시후 센터와의 통화가 끝난 후 스승님은 매우 기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새벽 5시까지 계속 차를 드신 후 우리에게 전날 밤잠을 자지 못했지만 즉시 명상홀로 가서 명상하라고 권하셨다.

스승님의 교화와 사랑

우리가 명상을 마치자 스승님은 다시 전화하셔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 오후 2시에 어떤 곳에 가서 저녁 9시까지 명상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은 상상치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로부터 4시간 후 스승님은 다시 전화로 명상은 그만하면 됐다고 알리셨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많은 한 장주가 도대체 무슨 일이며 누군가 자신의 욕실을 쓴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제야 우리는 스승님이 우리 욕실을 전부 다 청소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흘 후 우리는 주방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 주방 팀은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점심 때 우리가 식사하러 주방에 와 보니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를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았다. 스승님은 사흘을 연이어 아침마다 몰래 오셔서 장주들 전체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 스승님은 2시간 내에 크게 어지럽혀거나 많은 주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두가 먹고도 남을 음식을 준비하셨다. 게다가 그 음식은 우리가 여태껏 먹은 음식 중 최고였다! 스승님은 하루는 국수, 하루는 카레와 빵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간단히 준비하시되 단백질과 야채를 알맞게 섞어 요리하셨다. 대중들 모두가 이렇게 간단히 먹는 방식을 좋아해서 주방 팀은 스승님의 방식을 따라 요리하기로 했다.

스승님은 또한 우리에게 균형 있는 생활을 하도록 격려했다. 각자의 하루 일과를 점검하시며 모두에게 실내 작업과 바깥 일, 주변 청소 등의 일을 적당히 배분할 것을 희망하셨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이 바닥에 축 늘어져 밟힐 수도 있다고 농담하셨다. 스승님은 아주 멋진 제안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센터 곳곳에 ‘신을 기억하라(Remember God)’는 작은 쪽지를 붙이는 것이었다. 이 간단한 두 단어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지침은 우리의 성(姓), 또는 특별한 경의가 담겨 있지는 않았던 ‘동(同) 모모’라는 이름 대신에 ‘모모 성인(聖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성인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성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모 성인’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호칭 방식은 상대의 지혜안을 쳐다볼 때와 같은 매우 고양된 분위기를 창출했으며,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스승님이 전에 한 성인에게 왜 그렇게 빨리 진보했는지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장주는 아주 오랫동안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스승님은 우리가 즐겁고 이완될 때는 당신이 우리를 끌어올리기가 더 쉽다고 설명하셨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승님이 그 무렵 축하 파티를 많이 열어 우리를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즐기셨던 것 같다. 한번은 스승님이 한 가지 농담만으로 한 시간 내내 웃기기도 하셨다. 스승님은 이 농담을 많은 버전으로 말씀하셨다. (다음의 ‘신문 광고’ 편 참고.) 스승님은 때로 우리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셨는데 명상이 더 필요한 사람은 불러서 명상하라고 보내시기도 했다. 누구에게 명상이 더 필요한지 바로 아셨던 것이다. 어떤 사형이 혼자서 안거에 들게 되자 스승님은 장주를 한 명 보내 매일 그에게 가피물을 가져다주도록 하기도 했다.

스승님은 특히 첫 번째 성인들에게 관대하셨다. 그들이 외출을 할 때면 당신의 차를 빌려 주시기까지 하였고, 개인 전용으로 4개의 작은 방을 안배하시고 친히 수리 공사를 감독하셨다. 가장 흥분됐던 일은 스승님이 장주들에게 이틀 동안 옷이나 책, 영화 등 각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도록 쇼핑하러 내보내신 일이었다. 당시 한 장주는 일을 마치기 위해 나가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스승님은 나중에 그녀에게 중생들은 이미 수천만 년 동안 고통 받았으므로 우리의 일을 경축하러 나가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쇼핑에서 돌아와 보니



스승님은 벌써 샌드위치와 과일 샐러드를 동심원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며 준비해 놓으셨다.

며칠 후 스승님은 저녁 식사 때 오셔서 당신의 새집 짓는 일을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선물, 즉 현금이 든 빨간 봉투를 답례로 주셨다! 스승님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혼자 갖지 않으며 무엇이든 대중과 함께 나누신다. 스승님은 빨간 봉투를 주신 후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나며 미안해하셨다. 우리가 밖에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에도 스승님은 계속 안거를 하고 계셨고,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셨지만 너무나도 조용해서 우리는 스승님이 아직 센터에 계신지 느끼지도 못했다. 스승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며 무엇이든 당신 스스로 해결하셨다. 때로 장주들은 밤늦게 동물들을 살피러 다니시는 스승님을 볼 수 있었다.

4월 24일 우리는 지난번 선 이후로 전세계 수억의 중생들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스승님

은 장주들을 개인적으로 훈련하시는 한편 전세계를 축복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 기간이 플로리다 장주들에게는 큰 시험이었다. 따라서 스승님이 5월 15일 새벽 5시에 전화로 이 기간 동안 센터에 있었던 장주들 중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높은 의식 차원에 이르렀다고 알려 주셨을 때 우리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 '못된 한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서 5세계에 도달한 최초의 장주가 되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제 막 선이를 마쳤다고 스승님께 알린 사람이 없었던만 스승님은 알고 계셨다. 우리가 명상홀 밖에 있는 이동 전화 주위로 떼 지어 모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날을 알리는 새처럼 기쁨에 들뜬 스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순간을 영원토록 소중히 여길 것이다! 이는 우리 지구의 진화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육신 스승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스승님은 우리 모두를 끌어올리신 것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문 광고

월요일: 판매- R.D. 존이 재봉틀을 팝니다. 저녁 7시 이후 948-

0707로 전화 주세요. 문의는 싼값에 함께 살고 있는 켈리 부인에게.

화요일: 알림- 어제 R.D. 존의 광고가 잘못 나갔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재봉틀을 싸게 팝니다. 948-0707로 전화 주세요. 문의는 저녁 7시 이후 R.D. 존 씨와 살고 있는 켈리 부인에게로.”

수요일: 알림- R.D. 존 씨가 우리에게 어제 종별 광고가 잘못돼서 귀찮은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판매- R.D. 존 씨가 재봉틀을 판매합니다. 팝니다. 7시 이후에 948-0707로 전화 주세요. 문의는 함께 살고 있는 켈리 부인에게로.”

목요일: 알림- 나, R.D. 존은 판매할 재봉틀이 없습니다. 내가 부숴 버렸습니다. 전화도 끊었으니 948-0707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켈리 부인과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제까지 우리 집 가정부였지만 이제 그만되었습니다!

새집을 지으며 얻은 교훈

스승님은 최근 아름답고 혁신적인 새집을 고안하셨다. 스승님은 집에서 기르는 새들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의존해야 하긴 하지만 야생의 새들처럼 생존을 위해 사냥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높은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매일 새들에게 들러 사람을 대하듯 하나하나에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에 얹힌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스승님은 새들



로부터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내신다. 심지어 스승님은 새들에게 모이를 주기 전에는 수저를 따뜻하게 데우시기도 한다. 차가운 금속이 새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또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부족하면 하루에도 두 차례 이상 새장을 모두 방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신다.

새집을 지을 때 스승님은 유리를 사용하지 말고 물결무늬가 없는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서 물결무늬 플라스틱으로 지었다. 스승님은 그것을 보시자마자 물으셨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지요? 여러분도 저런 물결무늬를 통해 바깥을 보고 싶습니까?” 스승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새들이 하루 종일 일그러진 플라스틱을 통해 보면 어떤 느낌일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우리라면 매일 그렇게 보는 걸 견딜 수 있겠냐고 물으시며 우리도 견딜 수 없으면서 어떻게 새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하셨다. 스승님은 또 우리가 새집에 사용했던 실리콘에 독성이 있어서 새들의 민감한 목에 해롭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셨다.

나중에 스승님은 우리 대부분이 스승님을 돕고자 하며 스승님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지혜가 없는 우리의 도움은 쓸모가 없다

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랑에는 지혜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새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새집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다.

새집을 다 짓고 나서야 우리는 스승님의 창의성이 풍부한 영감을 알 수 있었다. 이 새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집으로, 낮에는 투명한 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밤에는 아코디언 식으로 된 문이 펼쳐져 새집을 통째로 덮었다. 천장에는 얇고 멋진 천창(天窓)이 한 줄 들어가 있었는데, 천창 위에는 우아한 투명 차양이 달려 있었다. 스승님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 지으셨다. 심지어 남아 있는 PVC 파이프까지도 활용할 방법을 궁리하셨다. 스승님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돋보이는 구상 중 하나는 센터 건물의 지붕 겉면을 하늘색으로 칠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건물의 지붕은 색이 어두웠는데, 벽에는 온갖 색을 칠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지붕을 칠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색을 칠하자 센터 전체에 시원한 분위기가 더해졌다.

새집이 완성되자 스승님은 조롱에 대해서도 매우 독창적인 설계를 구상하셨다. 사실 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였지만 오직 스승님만이 그런 점들까지 고려에 넣으셨다. 보통 새들은 금속으로 된 작은 조롱 속에 갇혀 지낸다. 하지만 스승님의 조



룽은 훨씬 더 넓고 벽이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천장과 마루는 금속 격자로 되어 있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스승님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마루에 꿰어앉아 장주들과 함께 드릴과 망치질을 하시며 조롱을 완성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그리고 농담 삼아 이 기간 동안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 익숙해져 이제 밤에 담요가 필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다.

조롱을 만드는 동안 스승님은 종종 새들의 의견을 묻곤 하셨다. 한번은 어떤 새에게 사다리를 한번 걸어보라고 하시자 새는 사다리로 가 몇 계단을 올라가더니 마치 “문제없어요.” 하듯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날아가 버렸다. 스승님은 조롱의 세부 사항마다 새들의 동의를 얻으려 하셨다. 알맞은 모이 그릇을 구하기 위해 많은 애완동물 용품점을 다니셨지만 새들에게 편리하게 고안된

게 없다고 생각하시곤 결국에는 4가지 그릇의 장점을 취합해 그릇을 하나 만들어 내셨다.

새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밤은 굉장히 추웠다. 새들은 방이 마련되는 동안 밖에 있는 조롱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스승님은 새들을 하나하나 안고 발을 만지시며 “오, 이런, 발이 차구나!” 하시며 매우 안타까워하셨다. 며칠 밤 동안 스승님은 새들에게 소형 히터를 틀어 주고 담요를 덮어 주느라 밤늦게까지 주무시지도 못했다. 한번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장주를 한 명 부르셨다. 스승님은 이런 늦은 시각에 불려서 미안하다며 히터의 전선이 너무 뜨거워서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장주는 새집의 전선을 새로 배선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스승님은 벌써 전선이 과열되지 않고도 히터 4대를 모두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다.

스승님과 동물 이야기

스승님은 모든 동물들을 돌보신다. 심지어 당신의 애완동물이 아닌 동물도 똑같이 돌보신다. 한번은 나방이 할로겐 등에 뛰어들어 죽는 것을 보시고선 곧바로 바깥 등을 모두 저열등으로 바꾸셨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도 있었다. 쇼핑하러 나가신 스승님은 어떤 애완동물 가게를 지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게에 들어가신 스승님은 이 가게에서 강아지



분양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곤 무릎을 꿇고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오랫동안 말을 거시며 틀림없이 좋은 집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스승님을 모시고 갔던 장주는 너무나도 사랑스런 목소리로 강아지들에게 말

씀하시는 스승님의 모습에 가게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트릴 뻔했다.

그리고 4년 전 센터에 왔던 떠돌이 개에 얽힌 이야기 또한 장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화다.

스승님은 센터를 떠나신 후에도 그 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은 전화로 그 개에게 여행 중 봐 두셨던 특별한 침대를 주라고 하셨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 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가 잃어버린 상태였다. 스승님은 이렇듯 길렀던 애완동물들을 결코 내치는 일이 없으셨다. 4년이 지나 플로리다 장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승님은 여전히 그 얘기를 하시며 오랫동안 우셨다. 스승님은 종종 그 개를 생각한 다면서 그 개가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셨다.

스승님은 항상 당신 자신보다 개를 먼저 돌보셨다. 예를 들어 최근 스승님의 제일 작은 개가 염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스승님만 즉시 개의 고통을 아셨다. 스승님은 한 사람에게 진통제를 사 오도록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그만 진통제를 먹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스승님은 “만일 내게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면 용서하겠지만 개에게 줄 약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면 용

서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다. 나중에 날씨가 더워지자 스승님은 더운 데에서 주무신 채 당신의 에어컨을 개들의 방으로 옮겨 개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스승님의 동물에 대한 관심은 이곳 수의사들에게 이름난 지 오래되었다. 몇 달 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주머니쥐가 다친 것을 보시곤 한 밤중에 수의사에게 전화를 하시기도 했다. 나중에 수의사의 한 고객이 14년간 길렀던 새 네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자 수의사는 스승님을 추천했다. 그러자 스승님은 다른 주에 있는 새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면서 장거리 여행 중 새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특별한 장난감과 새장도 함께 준비하셨다. 하지만 스승님은 원래 주인에게 새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부탁하시고 여러 차례 얘기를 시켜 본 결과 새들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곤 원래 주인의 차고를 새집으로 바꾸는 비용을 낼 테니 새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인을 설득하셨다.

기적적으로 넘어진 나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에 관한 얘기는 또 있다. 우리가 플로리다 센터에 있는 40피트나 되는 큰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때였는데, 정말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 나무는 아직 살아 있기는 했지만 집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 위험스러웠다. 스승님은 나무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에 고맙다고 얘기한 다음 이틀 후에 나무를 베라고 하셨다. 스승님은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밤 10시까지의 일을 마쳐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틀 후 정확히 밤 10시 정각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전기톱도 없이 말이다. 스승님이 새벽 2시에 전화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밤을 새웠을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한 후 다음날 오후에 작업을 재개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공학 학위를 가진 네 명

을 비롯한 장주 전체가 온갖 종류의 케이블과 닳을 이용해 나무를 옮기려고 6시간 동안이나 용을 썼지만 나무가 집의 지붕에 바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 서로들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다. 나무가 막 쓰러지려는 위급한 찰나에 한 사형이 우리에게 스승님이 아직 집안에 계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급히 스승님께 달려가 언제라도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알렸지만, 스승님은 아무런 동요 없이 태연자약하게 밖으로 나와 우리 일을 지켜보셨다. 상황을 파악하신 스승님은 우리에게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잡아당기라고 하셨다. 우리는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케이블이 달린 트랙터를 그쪽 방향으로 옮겨 놓았다.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트랙터로 끌어당기자 나무는 지붕 모퉁이에서 간발의 차이로 쓰러졌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은 학위를 갖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



겸손한 선인장에 대한 사랑

2003년 3월 어느 날, 스승님은 플로리다 센터의 뒤편에 있는 숲에 가서 작은 소나무를 몇 그루 찾아보려고 하셨다. 스승님은 마침 나무를 심고 있던 장주 몇 사람을 불러 함께 가셨다. 우리는 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 숲을 함께 천천히 거닐었다. 스승님은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매우 청정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솔잎이 가득 덮인 지면을 천천히 조심스레 걸으시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무 사이에 작은 선인장들이 서식하고 있으니 조심하도록 주의시키셨다. 또 산도끼를 보시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을 소란스럽게 한 데 대해 미안해하셨다. 나중에 스승님은 작은 소나무를 몇 그루 고르신 후 이 나무들은 옮겨심기에 적합하니 나무에 표시를 하거나 위치를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다.

소나무 숲을 떠날 때 스승님은 앞에서 작은 선인장을 발견하시곤 걸음을 멈추셨다. 그 선인장은 예전에 밟혔던 탓에 납작한 모양으로 자라 있었다. 스승님은 선인장에 달린 작은 열매를 보시곤 기뻐하시며 사막에서 배고프면 이런 선인장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인장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목소리에 배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 나는 선인장이 여태껏 살아 있는 게 오로지 스승님을 위해서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스승님은 “아,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졌는데도 고생해서 살아남았구나! 고맙다, 애야.” 하고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에 대한 신의 사랑을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귀한 장면이었다.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소리 로켓’

손 해녹스 사형/ 호주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나는 관음법문을 수행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지금에서야 이 법문의 기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내 삶 속에서 그 기능이 작용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자면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때론 놀랍기 그지없다.

음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나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내가 체험하는 범위를 벗어나곤 한다. 또한 이 음류는 내 ‘전용 로켓’ 처럼 나를 많은 경지로 데려다 준다. 대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이다. 사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서 한번은 스승님께서 비교적 높은 경지를 보여 주신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온갖 향기가 있는 경지에 있었지만 오히려 무서워졌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싶어 걱정스런 마음에 스승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일단 두려움이 생기자 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와 깨어나게 되었다.

내가 수행의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은 우선 음류로 자신을 정화하고 나서야 다른 영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화될수록 좀더 멀리 여행을 할 수 있고 근원에 보다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사실은 집중할 때라야 비로소 정화되기 시작하며 그런 후에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집중은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만일 명상하면서 잔다면 차라리 방에 들어가 잠을 좀 자고 나서 나중에 다시 명상하는 게 낫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오계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 부지런히 명상하기만 하면 확실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중국 함저우 동수

1995년 5월 친구의 집에서 처음으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접한 나는 완전히 이 책에 매료되었다. 스승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공을 수련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 안거하고 있을 때 내 운명을 바꾸어 영적 스승을 찾아 나서게 된 비전을 보았다. 그 비전에서 나는 쪽빛의 망망대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가운데 수정처럼 투명해 밑바닥까지 다 보일 정도였다. 해변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여인의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는 검은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었고 뱃머리에는 한 남자가 하얀 스카프를 휘날리며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다에는 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바다는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청정한 바다가 아주 맘에 들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비전을 보고 난 후 기공에 흥미를 잃고는 무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많은 절을 순례하고 수많은 경전에 대해 질문하던 중, 어느 날 산꼭대기에 있는 한 절에서 스승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 다른 지방 사

형정개해와의 인연

람이었던 그는 스승님의 책들을 갖고 그 절에 왔는데, 나는 그가 걸고 있는 메달에 있는 스승님의 법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다시 한 번 메달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확신에 차 말했다. “정말로 전에 본 적이 있나니까요!” 아주 낮은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는 “이분이 누군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저의 지도 선생님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왔다. ‘지도 선생님’이란 말은 보통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마흔이 넘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그 사형에게 물었다. “무슨 지도 선생님이신데요?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에 사형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분은 영적 지도 선생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해탈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다 스승님과의 인연이 다르지요. 인연이 깊은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으며, 스승님의 이름만 한번 듣고 지나가기도 하고 스

승님의 얼굴을 잠깐 뵙는 인연도 있지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데 없습시다. 죽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한번은 물에 들어가 사람을 구해 냈는데, 내가 빠져 죽으려고 생각했어도 파도가 해변으로 밀어냈어요. 또 사람을 구하려 불이 난 곳에 가면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불은 제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절로 꺼져 버렸어요!” 사형은 말했다. “죽는다고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업장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스승님은 당신에게 일세해탈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국제적인 농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에게 스승님의 책을 읽어 보라고 하며 집에 돌아가면 내게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2주에 한번씩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사형의 편지 내용은 내 마음속의 생각들과 꼭 맞아떨어졌다. 나는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을 다 읽는 것 같아 화가 난 나는 그에게 이제 연락을 끊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저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모두 우리 스승님의 감로법어예요.” 당시 나는 감로법어가 뭔지 몰랐지만 참 좋았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나의 존재 자

체도 모르는 스승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아시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사형은 “스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젠 더더구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스승님을 못 본단 말인가?

내가 사형에게 스승님의 책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주소를 하나 알려 주며 직접 찾아가 보라고 했다. 책을 받으러 가기 전 보

기 드문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쳐 차량이 완전 마비되었다. 가족들은 기차표를 물리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출발할 때쯤이면 차가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확신했다. 그랬더니 과연 내 생각대로였다! 나중에 들어 보니 내가 기차를 타고 떠난 후 엄청난 폭설과 우박까지 내려 다시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기차역에서 스승님의 책을 기

다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스승님께서 강연을 하시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앞서 말한 사형은 나를 단상 뒤쪽으로 데려가 스승님을 뵈 수 있게 해주었다. 스승님은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듣고요.” 하고 내게 말씀하셨다. 법희로 충만했던 나의 첫 번째 체험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나는 마침내 스승님께 입문하게 되었다! 입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신이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며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다니 이상하기만 했다. 무엇이든 기뻐고 길을 걸으면서 계속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행인들에게 인사도 건넸다. 사람들을 마구 안아 주고 싶었으며 심지어 평소 무서워하던 작은 동물에게까지 뽀뽀하고 싶을 정도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어느 집의 미친 여자지? 집에서 돌보지도 않나?” 당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다른 동수들이 걱정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다. 특

입문 후 발월 기간

하면 웃음을 터트렸고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었다! 스승님의 숭고한 사랑의 영향은 정말 놀라웠다!

오래된 동수들에게 들어 보니 입문 후 6개월 간은 스승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열심히 명상하기만 하면 날마다 법희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다! 첫 번째 단체 명상에 참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명상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나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가 시계를 빨리 맞춰 놓은 거지요?”, “혹시 당신 시계가 고장난 건 아닌가

요?” 하고 물었다. 모두들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얹은 지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았고, 관음한지 이제 막 5분 지나서 차분해진 참인데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냐고 물었다. 다리도 아직 저리지 않았고 외부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은 채 내면은 완전히 깨어 있는 느낌이었다!



1997년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는 시간만 났다 하면 어렵사리 구한 스승님의 테이프를 들었다. 당시 나는 먹다 남은 차나 한약 찌꺼기를 가게 맞은편의 잡초에 부어 주곤 했는데 그 결과 내가 물을 부은 곳의 풀들은 다른 풀보다 훨

십전대보탕

씬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것을 본 주위의 가게 주인들은 내게 물었다. “무슨 보약을 먹나요? 잡초마저 저렇게 잘 자라니 사람한테는 더할 나

위 없는 보약이겠군요!” 그제야 나는 스승님의 테이프를 듣다 보니 마시던 차와 보약도 스승님의 축복을 받아 ‘십전대보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별안간 복통이 일어나더니 순간 온몸의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줄 줄 흘렀다. 주위에 사람도 없는 데다가 꼼짝도 할 수 없어서 겨우 위크맨을 눌러 스승님의 테이프를 틀자 고통이 잠시 사라졌다. 테이프가 멈추자 나는 괜찮겠지 싶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테이프가 멈추

위없는 사랑이 목숨을 구하사

자마자 다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테이프를 다시 틀었고 감히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들었다.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어서야 괜찮아졌다. 이튿날 나

는 쥐약이 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대체 내게 무슨 공덕이 있기에 스승님의 위없는 사랑을 몇 차례에 걸쳐 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1999년 3월 나는 어느 사립대학에서 양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스승님 덕분에 얻게 된 직장이었다.) 어느 날 아침 길거리에 지렁이들이 가득했는데 우리 집 발코니에도 수없이 깔려 있었다. 게다가 모두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승님께 기도를 하며 도움을 청했다. 출근하면서 스승님의 불찬

불찬으로 기사회생한 지렁이

을 끄는 걸 깜박 잊는 바람에 불찬은 오전 내내 틀어져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 보니 이웃집의 지렁이들은 여전히 검은 색이었지만 우리 집 발코니에 있던 지렁이

들은 원래 색깔대로 빨갭게 변해 있었다. 당시 공기 중엔 한약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얼른 카세트를 가져와 지렁이가 가까이 틀어 놓았다. 퇴근 후 돌아와 보니 발코니의 지렁이들이 전부 되살아나서 느릿느릿 기어다니고 있었다.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1월 2일까지 태국에서 국제 선육이 열렸다. 선에 참가할 수 없었던 우리 지역의 동수들은 어떤 사저의 집에서 자체 선을 하기로 했다. 어느 날 혼자 스승님의 법상에 대고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꽃병의 꽃이 다 시들어 있는 걸 발견했다. 집주인인 사저는 5월에 사다 놓은 꽃이라서 시든 지 오래됐다고 얘기했다. 나는 이 꽃이 싱싱해서 스승님께 공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고선 다시 명상을 하며 스승님의 테이프를 경청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말라비틀어

바른 가지에 꽃이 피사

진 꽃이 전부 활짝 피고 축 처져 있던 꽃잎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동수들에게 얼른 한번 와 보라고 소리치자 동수들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줄기를 만져 봤지만 줄기는 말라서 딱딱한데 꽃은 오히려 부드럽고 싱싱했다. 게다가 꽃병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 있지 않았다! 갑자기 모두들 부산을 떨며 온갖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와 스승님의 법상 앞에 놓으며 스승님의 축복을 청했다. 스승

님을 뵈러 태국에 가지 못해서 심란했던 우리들 마음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스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은 카세트도 치우고 테이프도 없는데 밤새도록 스승님의 불찬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는 매우 경이로워했다! 그것이

무상 성령의 소리

무상 성령의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스승님의 불찬을 듣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내면 깊숙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왕 사형/ 중국 본토

나는 30년도 훨씬 넘게 오른 쪽 귀에 이상한 병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수년 동안 귀의 통증은 계속되어 잘 들리지 않게 되었고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만 했다. 나중에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엄청나서 그저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995년 11월에 운 좋게 관음법문을 알게 되었는데 방편법을 수행하고부터 병이 호전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00년 8월 어느 날 밤 아내는 나의 귓속에

관음법문이 고질병을 고치다

서 지저분한 물질들이 수없이 흘러 나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당시 나는 집에 없었는데 아내는 그 꿈이 스승님의 큰 힘이 축복을 내려서 내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흥분한 아내는 그 꿈을 다른 사저에게 얘기하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내가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내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달려 나와 나의 귀를 살피곤 아무 말 없이 가 버렸다. 나는 아내

가 나의 고질병을 걱정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기적은 그 며칠 후에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 오른쪽 귀에서 피로 엉킨 땅콩만한 두 개의 덩어리가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내가 얼른 주워서 아내에게 보여 주자 아내는 비명을 질렀다. 나의 오랜 병이 이렇게 낫다니 이는 정말 스승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이 체험을 나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장 사저/ 중국 본토

2003년 음력설 연휴 동안 나는 몇몇 동수들과 함께 선이를 했다. 둘째 날 저녁 6시쯤 소파에 앉아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향했다. 나는 창턱 유리 아

신의 광명 속에 치러진 새해 선

래에 놓인, 동수들에게 보내신 스승님의 2002년 신년 메시지를 보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감사와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스승님의 비디오를 계속 시청했다.

얼마 후 나는 옆에 있던 동수에게 그냥 두서없이 말을 꺼냈다. “아! 작년에는 스승님의 신년 메시지를 받고 모두들 기뻐했는데, 올해는...”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아 있던 사저가 내 말을 막았다. “장 사저! 머리 위에...” 그녀가 내 머리를 가리키며 놀라움에 차마 말을 잊지 못하자 나는 머리에 벌레가 있는 걸로 생각했다. 벌레를 무척이나 무서워했던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뭔데요?” “사저 머리 위에 노란 빛이 있어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진짜 노란 빛이 걸려 있었다. 신이 난 나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그 빛을 가

지고 맘껏 장난을 쳤다. 다른 동수가 손을 뻗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만지려 하자 놀랍게도 빛은 그의 몸을 통과했고 그의 손은 하늘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높이 흔들며 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이때 또 다른 동수가 명상홀에도 빛이 있다고 말했다. 즉시 달려가 보니 정말 흰 빛, 노란 빛, 파란 빛이 벽과 소파, 바닥 등에 나타나 방

전체가 온통 빛투성이였다! 빛은 40분가량 계속되었다. 나는 기쁨에 들떠 말했다. “우리는 신의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서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축복 속에 선이를 마쳤다.

이는 신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의 최고의 새해 선물이었다!



중국 본토 사저

다음은 스승님의 천의와 천상의 보석을 구입했거나 본 적이 있는 동수들의 체험담이다.

채식과 수행을 하는 한 영능력자는 동수가 입은 SM 천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이라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수가 소중히 아끼는 천상의 보석을 보고는 ‘작은 징표’라고 했다. “여러분 각자가 끼고 있는 이 작은 징표에는 번호와 암호

천국의 암호

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장롱에 넣어 둘 게 아니라 매일 꺼야 합니다. 또 천의는 매일 입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빛을 나눠야 해요. 그냥 서랍에 넣어 두지 마세요. 여

러분이 진리를 널리 퍼길 천지가 원하니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동수들은 그에게 물었다. “우리 스승님께서 언제쯤 중국에 오실 것 같습니까?” 이 영능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의 강과 땅의 강이 다시 통할 때, 그때가 오면 나 역시 당신의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중국 본토 동수들은 천상의 보석과 천의를 보기가 쉽지 않다. 초기에는 담당 동수가 주문받은 천상의 보석들을 해당 지역으로 배달했고 천의도 동수 집에서 전시했다. 한 나이 많은 사저는 천상의 보석을 받고는 기쁨으로 가득 차 말하길, 4, 5일 전에 이미 내면의 스승으로부터 주문한 보석이 중국 본토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천의를 보는 것이 곧 스승님을 보는 것

또한 각 지역으로 천의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한 동수는 당시의 모습들을 얘기하며 다시 한 번 감동에 젖었다. 어떤 동수는 주문한 천의가 도착했다는 전갈을 받자마자 발에서 일하다 말고 호미를 든

채 자전거를 타고 집을 향해 30킬로를 달려와서 집에 들어설 때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또 한 사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천의가 보이자 마치 스승님을 뵈는 것처럼 그 옷을 안고 설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주 오랫동안 흐느끼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중국의 천의 의상점에서는 전 시용으로 쓸 두 개의 마네킹을 새로 구입했다. 시후의 마네킹은 마치 옆 사람에게 말을 걸 것처럼 생동감 있어 보이는 데 비해 아직 천의를 걸치지 않은 마네킹은 생기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작업 팀이 마네킹에게 천의를 입힌 후 쇼윈도 양쪽에 하나씩 배치하자 훨씬 나아

살아 있는 듯한 천의 마네킹

보였다.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놀란 얼굴을 한 경비가 다가와 말했다. “어젯밤 당신네 가게의 마네킹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내가 전등으로

쇼윈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두 개의 마네킹이 진짜 사람처럼 보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말에 마네킹을 둘러본 작업 팀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네킹들은 벌써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며 살아 있는 듯 활기가 넘쳤기 때문이다. 옆에서 보면 눈까지 반짝였다!

한 사제가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스카프를 갖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승님에게서 연꽃 한 송이를 받는 꿈을 꾸었다. 이는 이 작은 스카프를 비롯해 스승님의 모든 천의에는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며, 세계 곳곳에 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름 아름다움

상의 빛을 가져다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이 천의를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저절로 고양되고 온

우주 또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천의와 천상의 보석은 수행자들에게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며 또한 인류가 황금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코바스크 사형/ 슬로베니아 (원문 영어)

나는 슬로베니아의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로가스가 슬라티나의 한 호텔에서 점수를 맡고 있는데, 얼마 전 일하다가 스승님의 가피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이곳의 큰 공장 사장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호텔을 찾았다. 그들이 로비에 들어섰을 당시 나는 스승님의 불찬을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쳐 보이는 그 사장은 내게 소리를 좀 크게 해서 자기에게도 들려 달라고 했다. 스승님의 천상의 음성이 로비에 가득 퍼지는 동안 그는 점수대에 몸을 기

스승님의 천상의 목소리가 지친 영혼을 위로한다

대곤 귀를 기울였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갑자기 기력을 되찾은 모습으로 말했다. “이 여성은 수천만 명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군!”

평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던 이런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게다가 나는 불찬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

이다.

이 체험을 통해 나는 누구든 단 몇 분이랄도 가슴을 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신은 만물에 존재하시며 단지 우리가 찾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영혼 그룹

청하이 무상사/ 2000. 4. 27. 뉴질랜드 오클랜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86



여러분은 자신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대중 박수) 우리가 잘 맞는 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본질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영혼도 여기 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있는 이곳보다 훨씬 큼니다. 아마 이곳을 포함하고도 남을 겁니다. (스승님께서 강연장 전체를 다 끌어안는 몸짓을 하시다.) 그러니 이곳 모두가 나인 겁니다. 다만 모습이 다를 뿐이지요. 그건 유일하게 신이 오직 하나뿐이며 모두가 신과 하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제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 커서 수많은 '육신'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상대방을 자신처럼 느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과 하나이기 때문이거나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영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나 영혼의 동반자처럼 같은 영혼인 거지요. 영혼의 동반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럿일 수도 있어요. 위대한 영혼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많은 다른 존재들을 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자매처럼, 동일체처럼 느끼게 됩니다. 때로 형제자매나 부모님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거지요! 영혼은 단 하나지만 그것으로 가족을 이룬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영혼에서 많은 육신이 나온 겁니다. (대중 박수)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나는 저 사람과 인연이 있다.", "그녀(그)는 내 영혼의 동반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내 말은, 서로가 한 영혼에서 비롯된 영혼 집단의 개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과 하나이자 모든 이와 하나일 뿐 아니라 개별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영혼은 수많은 영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좋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수록 힘이 더 커지는 것 같지요. 집에서 자기 식구들과 있으니, 함께 있으면 서로 화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이 나라는 게 상상이 되나요? (대중 웃음)

영혼의 동반자란 무엇인가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7.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9

질문: 쌍둥이 영혼, 그리고 자아의 남성적·여성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스승님: 쌍둥이 영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모두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우린 그런 사람을 ‘영혼의 동반자’ 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없이 윤회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그 영혼과 같이 살고 일하고 사랑했다면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영혼을 만났을 때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린 전에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맞고 편안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영혼의 동반자’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사람들은 서로간의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거나 좋은 누이동생, 좋은 부모자식 사이가 됩니다. 관계가 아주 좋지요. 이것이 영혼의 동반자의 의미입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3. 4. 14.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52

질문: 이 세상에 영혼의 동반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영혼의 동반자 간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스승님: 영혼의 동반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강하게 끌리고 두 사람이 실생활에서나 특히 영적 진보에 있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영혼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에는 영혼도, 동반자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 세상에 해당하는 용어일 뿐이지요. 여러분이 특별히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세계에서의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하다면 말이죠.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야 하는가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9.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4

질문: 영혼의 동반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스승님: 이생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방법

칭하이 무상사/ 1999. 12. 28. 태국 방콕 국제 선육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7

질문: 저는 독신자로서 다른 독신자들을 대신해 여쭙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영혼의 동반자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이런 조건에 맞는가 싶으면 다른 조건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정말 알고 싶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녀가 어떠한 아름다움과 덕성, 품성을 갖췄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각 품성을 리스트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 영혼의 동반자에게 바라는 모든 품성을 조목조목 분명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바로 알 겁니다.

반드시 상상해 봐야 합니다. 글로 써 놓고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영혼의 동반자와 닮은 여인이 있으면, 최소한 겉모습이라도 닮았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그려 놓으십시오. 아니면 그녀를 닮은 사람의 사진을 찾거나요. 그러면 됩니다. 먼저 그 모습을 떠올려다 보면 어느 날 실현될 것입니다.

무소부재의 경지에서는 영혼의 동반자가 필요 없다

칭하이 무상사/ 1994. 6. 30.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37

질문: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야만 해탈할 수 있나요?

스승님: 이른바 ‘영혼의 동반자’ 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의 동반자는 이미 해탈해서 여기서는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영혼의 동반자는 아직 이곳에 있어서 기다려야 하지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가슴속에 더 이상 바람이나 욕망이 없다면 그 영혼의 동반자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욕(無慾)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소부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한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무소부재할 때에는 영혼의 동반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어린 환경 일꾼

포모사 신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양인광(楊音光) 사형은 어머니의 격려 속에 방과 후 여가 시간에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대원들과 함께 ‘포모사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양 사형은 충실한 생활 경험을 통해 노력의 성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포모사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지역 부문 백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전국 십대 우수 청소년 봉사자 상’도 받게 되었다.

양 사형은 우연한 기회에 동수이 기도 한 청청수오 선생님께서부터 ‘포모사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포모사 교육부가 유니세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 공동 발기한 ‘세계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부응해 전개한 활동이다. 새 천년 도래를 맞아 지구촌이라는 비전과 미래의 발전을 중시한 유니세프는 다가올 미래의 사회 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현재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유니세프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전세계 청소년 조직에게 시합의 성격을 띤 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각 단체별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문제를 목표로 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청소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 공약’의 이념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수인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어린 양 사형은 이 활동에 참가



해 다방면의 배움을 체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전 학교 친구와 놀이 친구들과 함께 ‘녹색 선봉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대장을 맡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녹색 선봉대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실천 방안을 짰 뒤 그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갔다.

양 사형은 평소 자신의 집 쓰레기 처리를 도울 때 쓰레기 수거 차량에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그 속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 보호 이념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 위생에도 대단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원들은 선생님과 토론을 한

후 자신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장차 아름답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심했다.

양 사형은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자연스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야 합니다.” (뉴스잡지 97호 지혜어록) 그래서 대원들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진행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자아 발전을 위한 항목을 계획해 자기 관리를 배우고 각종 능력을 키우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기로 했다.

이러한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 사형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많은 결점들을 고쳤고 더 많이 진보했습니다. 빵 굽기, 꽃과 채소 심기, 발일구기, 대나무 자르기, 야채 다듬기, 생강 캐내기(수확할 때는 뽑으면 안 된다.) 등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하려 하지 않았던 일들도 해봤고 ‘불굴의 의지’의 중요성도 배웠으며 좋은 생활 습관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사가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식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환경을 파괴하는 점을 설명하자 대원들은 모임 때마다 채식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채식을 하지 않던 일반 대원 몇몇도 평소 가능한 한 채식을 하려고 노력했다.

녹색 선봉대는 목표를 세운 후 지역 환경 봉사자와 마을 지도자, 읍장, 환경 미화원, 지역 환경국 등지를 방문해 자문과 도움을 구했다. 이어서 환경 보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중요성과 그 실시 방법을 선포했다. 양 사형은 나이 어린 중학생인데도 매우 조리 있고 분명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의 지도 아래 녹색 선봉대는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과 자원 회수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환경 보호국에 2만 NT(미화 약 600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해 재활용품 회수대를 설치했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환경 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월 지역 대청소, 다른 환경 개선 활동 참여, 환경 보호 자원 봉사 활동, 월간 지역 신문 발행 및 지역 내 친목 활동 개최 등 의미 있는 활동들도 함께 병행했다. 녹색 선봉대는 지역 환경 미화원과 읍사무소, 그리고 주민의 지지 속에 원래 쓰레기더미였던 주요 교차로의 황무지를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기도 했다.

양 사형은 환경 보호 활동 외에 많은 어린이들이 전쟁과 빈곤, 부

모의 실직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이들을 위해 학자금 모으기로 했다. 그와 대원들은 채식 케이크와 과일 젤리를 만들어 집집마다 다니며 자선 판매를 하고 벼룩 시장을 열어 4만 NT(미화 약 1,200달러) 이상을 모아서 ‘대만 세계 전람회’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원했다. 대원들은 이 모금 활동을 통해 ‘끈기, 노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다.

어린 양 사형은 선봉대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함께하는 불가사의한 신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지역 협조 모임을 가졌을 때는 많은 어른들이 참석해 일면식도 없는 이 아이들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환경 보호 설명회가 열렸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하늘에서 보낸 지원병들처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비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대원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견지했고, 그 결과 날씨가 화창하거나 아니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야 비가 오곤 했다. 한 해 동안 도움과 지원이 미리 안배된 듯 기적처럼 일어나자 대원들은 스승님의 가피와 무한한 은총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녹색 선봉대의 모든 활동들은 웹사이트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으며, 그 우수한 실천과 풍성한 성과는 ‘포모사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팀들에 비해 두드러져 ‘포모사 청소년 밀레니엄 프로

젝트 지역 부문 백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명의 대원 또한 전국 청소년 자원 봉사자 심사위원상을 받게 되었고, 양 사형은 전국 십대 우수 청소년 봉사자 상의 영예를 얻었다.

양 사형은 수상 당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우리가 얻은 진정한 성과는 그 과정 중에 배운 기술과 정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됐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자원 봉사자 어르신들의 지원, 마을 지도자 분들의 도움, 학교 친구와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특히 제게 이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 주신 청청수오 사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를 후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팀은 생기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상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일하고 배우며 놀 수 있었던 건데 정말 멋졌습니다!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활기 넘치는 체험 학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사형은 앞으로도 방과 후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 환경 보호 활동과 정신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믿음의 승리

레프키 파블리디스 사저/ 호주 멜버른 (원문 영어)



1977년에 출품된 영화 ‘할렐루야(Oh, God)’의 주인공 제리 랜더스(존 덴버 분)는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슈퍼마켓 사장으로 신의 선택을 받아 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신이 그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으며 인류는 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믿고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이래로 이런 메시지는 제리와 같이 의외로 지극히 평범한 무수한 사자(使者)들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어 왔다.

신은 먼저 당신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제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편한 옷차림에 안경을 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리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이 보낸 다른 모든 사자와 마찬가지로 제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에 부딪혀 극복해야 했다. 처음에는 신문기자에게 다가가 얘기를 했으나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가족들 또한 신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제리는 TV 토크쇼에 나가지만 모두들 그의 말을 가볍게 넘겨 버리고, 여러 교회 목사들과 이 일을 얘기해 보지만 그들은 오히려 고대 아람(Aram)어로 쓰인 50가지 질문으로 종교적인 시험을 할 뿐이다! 마침내 그는 사리사육에 사로잡힌 TV 전도사에게 맞서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다. 그러나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제리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할렐루야’는 매우 흥미진진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잘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를 본 후 나는 신에게 매우 감동했다. 신은 넘치는 사랑과 인내로써 우리를 대하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신을 무시한다. 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 원치 않고 대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길 바라신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스승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셔야겠구나!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 인내심은 참으로 헤아릴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렐루야’는 이러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친근하며 또한 오락성이 풍부한 작품으로서 모두가 감상해 볼 만한 영화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써니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중국어)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확실한 원인을 알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유를 모를 땐 ‘우연’한 일로 간주한다. 또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잘되지 않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생에는 우리 의지와는 다른 일들이 허다한데, 아마 이것은 다양한 삶들의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이미 세상의 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안

다. 또한 동수들은 모든 것이 스승님의 안배로서 좋은 나쁜든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해 배워야 할 공부라고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연스레 해피 요기가 될 것이다!

최근 나는 생활 중에 겪은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통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나의 평소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일화

작은딸 릴리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첫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릴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면서 내가 가끔씩 얘기해 주었던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인생은 무상하다’, ‘사람의 몸은 받기 어렵다’, ‘인생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등과 같

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었다. 덧붙여 우리가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도우면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지 말라고 충고했다. 외손자는 수술 예정일을 몇 번이나 넘기더니 내 생일에 태어났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내가 딸에게 해준 얘기는 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한 예였다.

두 번째 일화

샌프란시스코 센터의 한 방편법 수행자는 일년 넘게 방편법을 수행하면서도 입문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센터에서 열린 스승님의 생신 경축 행

사에서 전년과 달리 그 행사에 참석한 나와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주제에서부터 그녀가 입문을 망설이는 까닭까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 나는 내 경험담을 말해 주

면서 인생은 무상하며 인간의 몸은 받기 어렵고 모든 사람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않게 이 대화가 그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입문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내가 한 말이 모두 신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나중에 “당신이 말한 메시지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절묘한 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녀의 이름이 내 딸 릴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의 만남과 이야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경험케 하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일화

북캘리포니아 화교들이 주최하는 제19회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 주최측은 2003년 사스 사태 동안 포모사에 의료용 마스크를 기부하신 스승님의 자비와 관심에 감사하고 기리는 뜻에서 다른 불교 단체들과 함께 우리 단체를 개회식에 초대했다. 개회식에서 사형사자들이 사령대를 지나 행진하는 동안 주최측에서는 우리 단체를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해탈을 가르치는 수행 단체로서 채식을 주창하고 명상과 선행을 하며 세계의 의식 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메시지를 접한 무수한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영성의 씨앗이 뿌려졌으리라 믿는다.

이날 동수들이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나눠 주는 동안 나는 한 손에는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다른 손에는 채식 한 접시를 들고 있는 중년의 미국 여성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관음법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관심을 나타냈고 우리는 곧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즐겁게 담소를 나눴다. 그녀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좌절과 어려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깨달음을 찾는 그녀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옛날 선조들이 나무를 비벼 불을 얻었던 과정을 예로 삼아 ‘즉각개오’의 의미를 설명했다. “불씨를 얻기 위해 백 번을 비벼야 한다면 그 마지막 백 번째 시도, 즉 불이 붙는 시점이 바로 관음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깨달음에 대해 가졌던 갈망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고는 매우 기뻐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 갈 무렵 내가 무심코 그녀의 이름을 물었을 때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와 나의 이름이 같았던 것이다! 나는 최근 스승님의 앵무새 이름을 본떠 밝음과 따뜻함을 의미하는 ‘써니(Sunny)’라는 영문 필명을 택했는데 그녀 이름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이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 또 있을까! 사실상 모든 답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는 이미 신의 ‘각본’에 아주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다!



우주의 비밀에 관한 뉴턴의 탐구

우쉬에임 사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원문 영어, 중국어)

아이작 뉴턴(1642-1727)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물질계의 각 방면을 아우른 그의 연구 성과는 특히 이론과 실험 물리학, 화학과 응용 수학에서 두드러진다. 그 중 미적분의 발명, 빛의 합성 원리의 발견, 역학 삼대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의 체계화, 최초의 반사 망원경 제작은 가장 탁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 성과들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뉴턴은 평생 우주의 신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으며 무신론(無神論)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태양계를 관찰하다 보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적당한 양의 열과 빛을 받기에 알맞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우연한 현상이 아닌 것이다.”

과학 연구 외에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언과 언급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성경을 해독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통해 계시록에 예언된 예수 재림과 세계 종말의 날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것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적은 ‘신의 말씀’이다.”

뉴턴은 임종하기 얼마 전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해변에서 뛰놀며 가끔씩 좀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껍질을 찾아내 즐거워하는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눈앞에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알려지지 않은 채 있는데도 말이다.”라

고 진술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성경에 관한 막대한 분량의 연구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 일부는 ‘다니엘의 예언과 요한 계시록의 상관 관계 연구’라는 제목으로 그가 죽은 지 6년 뒤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원고는 대부분 한 수집가가 소장하다가 훗날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라이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목록에 실렸으며, 1960년대 말 세인들에게 공개 전시되었다.

최근 뉴턴의 원고를 연구하던 한 캐나다 학자는 우연히 뉴턴의 예언이 담긴 원고를 발견했다. 뉴턴은 이 원고에서 질병과 전쟁 후 예수가 재림할 것이고 그 후 성인들이 천년 간 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자신 또한 이 성인들 중 한 사람에 속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학자가 발견한 또 다른 종이 조각에는 뉴턴의 흘려 쓴 필체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 사건들이 정확히 발생할 날짜가 적혀 있는데, 바로 2060년이라고 한다.

2003년 3월 초 영국 BBC 2TV에서는 뉴턴의 예언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rense.com/general35/isa.htm>

http://www.blueletterbible.org/Comm/isaac_newton/prophecies

http://www.bbc.co.uk/religion/tv_radio/miscprogs/newton.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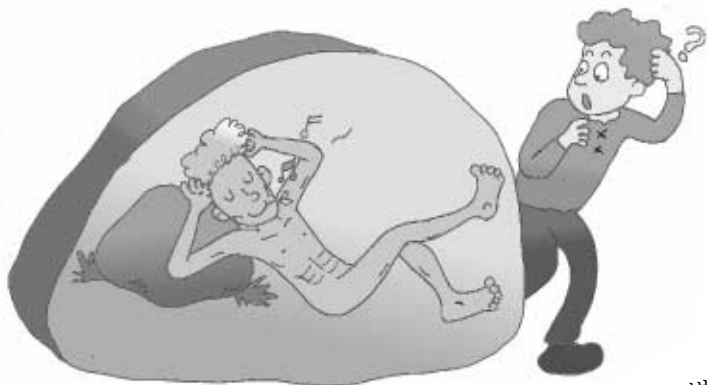
<http://www.scifitoday.com/story/2003/2/23/21450/4036>

*구약에 언급된 ‘The Word of God’ 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청하이 무상사/ 1992. 7. 1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68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전해 오는 민간 설화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중병이 들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각지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왔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병은 갈수록 심각해져 백방이 소용없고 그의 가족 또

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온 어떤 수행자가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옷을 가져다 아버지에게 입히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즉시 사방팔방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을 다녀봐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찾은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행복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곤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가족들은 계속 찾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효성이 지극했던 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야 말리라는 결심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고자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매우 지친 데다 날까지 어두워지자 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굴이 보여서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지요. 동굴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나는 행복한 사람!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냈네. 하루하루가 행복하구나!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 소리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리도 들렸어요. “아, 이제 잠이 온다. 난 행복하게 잠들 거야.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난 행복해!” (스승님과 대중 웃음)

부자의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뿔 듯이 기뻐하며 ‘마침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복한 사람의 옷을 가지러 서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은 완전히 별거없고 있었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정말 아무것도 걸친 게 없었지요!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가 실망해서 낙심한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내가 찾고 있던 걸 찾지 못하게 됐어요.” 하고 대답했지요. “뭘 찾고 있었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묻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어떤 수행자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의 옷을 아버지에게 입히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와서 당

신의 옷을 가져가려 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말했지요. “저런! 내게 입을 옷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대중 박수)

그의 말은 어떤 재산이라도 있었다면 부담이 되어 그토록 행복하진 못했을 거라는 얘기였지요. 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압박감도 없었고 재산을 잃을까, 도둑맞을까, 훼손되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었으니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으며, 사람들이 흠쳐 가거나 자신을 해칠 게 두렵지 않아서 그토록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재산이 많이 있으면 걱정이 많거나 행복하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재산의 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합당한 곳에 쓴다면 재산이 없는 셈이고 마음을 놓아 버리는 셈이 됩니다. 재산도 없고 돈도 못 벌면서 ‘못 먹으니 포도가 시다고 한다.’는 식이 되면(스승님과 대중 웃음) 이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정말로 행복한 마음은 부나 가난에서 생기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묶여 버립니다. 그들은 재산을 돌보고 키우고 잘 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거나 시기하지 않을까, 혹은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지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산이 생기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관리할 것도 없지요.



감로법어

오직 수행만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2. 3. 23. 대한민국 부산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34

우리가 수행을 잘하게 되면 업장도 소멸되고 병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신통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선행과 계율, 채식은 그보다 훨씬 더 영구적인 신통력으로서 수많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보다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장애와 질병 또한 자연스레 줄어든 것입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센터	228-4-410-948
팔리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감팔라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부에노스아이레스		
★ 볼리비아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산타크루즈	Mr. Wu Chao Shien	591-4625964
트리니다드		
★ 브라질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벨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레시페		
상파울루		
★ 캐나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h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뱅크버	Ms. Li-Hwa Liao	7-604-580-4087 jsung99@shaw.ca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에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네바다 :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shive@cal.vsnl.net.in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발리	센터	62-361-231-040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Mr. Agus Wibawa	smch_bali@yahoo.com	칼라룸푸르	센터	supreme2@tm.net.my
		62-81-855-8001			603-9287-3904
자카르타	센터	wibawa001@yahoo.com	연락인 사무실		klsmch@tm.net.my
		62-21-6319066			6012-259-5290
	Mr. Tai Eng Chew	smch-jkt@dnnet.net.id	페낭	센터	klgcp@hotmail.com
	Ms. Lie Ik Chin	62-21-6319061			6-018-2413832
		62-21-6510218		Mr. & Mrs. Lin Wah Soon	pgsmch@pd.jaring.my
	Ms. Murniati Kamarga	finance1@uei.com	★ 몽골		60-4-6420370
		hai@cbn.net.id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baasandamba@yahoo.com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irn_up@yahoo.com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 네팔		
		yudi_wartono@telkom.net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Mr. Ajay Shrestha	977-1-473558
		smch_medan@hotmail.com	포카라	센터	ajaystha@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Mr. Bishnu Neupane	977-61-28455
		ahimsasb@indosat.net.id		neupanebishnu@hotmail.com	
	Mr. Harry	62-31-594-5868		Mr. Shiva Bastola	977-61-28255
		harry_l@sby.dnet.net.id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t.adianingtyas@eudoramail.com		manilach@hot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ya05@netvision.net.il		chinghai@singnet.com.sg	
★ 일본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 스리랑카		
		divinalv@mtb.biglobe.ne.jp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lawrance@thefinance.lk	
		tateyama_lg@yahoo.co.jp	★ 태국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방콕	센터	662-674-2690
		cal13840@pop07.odn.ne.jp		bkk_c@hotmail.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y-plus@f6.dion.ne.jp			66-2-5914571
★ 한국				edaslnd@samsorn.stou.ac.th	
	출판사	031-772-9250		Mr. Wu Peir Yuan	66-1-8248294
영동	영동 센터	chinghai@unitel.co.kr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054-532-5821	콘캔	센터	66-43-378112
서울	서울 센터	houmril@kornet.net	송크라	센터	66-74-447224
		02-577-2158			
	유태인	quanyim@unitel.co.kr	*** 유럽 ***		
	이지자	02-795-3927	★ 오스트리아		
부산	부산 센터	02-599-1701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051-581-9200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송호준	chinghaibusan@hanmail.net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황상원	051-957-4552			sound@gmx.at
전주	전주 센터	051-805-7283	★ 벨기에		
		063-274-7553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신현창	shc5824@hanmail.net		gotske@yahoo.fr	
인천	인천 센터	063-254-5824	★ 불가리아		
	이재문	032-579-5351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대구	대구 센터	032-244-1250		oldruslan@yahoo.com	
		053-743-4450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김익현	chinghaidaegu@hanmail.net		chinghaiplovdiv@mail.bg	
	한선희	053-633-3346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차재현	053-767-5338		zeljko@mindless.com	
대전	대전 센터	053-856-3849	★ 체코		
	김수동	042-625-4801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광주	광주 센터	042-254-7309		prague-center@chinghai.cz	
	조명대	062-525-7607		42-0-608-265-305	
		061-394-6552		Chinghai@chinghai.cz	
안동	안동 센터	smgwangju@naver.com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김삼태	054-821-3043		my@webspeed.dk	
제주	제주 센터	054-821-3043	★ 핀란드		
★ 마카오	센터	064-99-6113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853-532231		hoanghanh@jippii.fi	
	연락인 사무실	macau_center@email.com		Ms. Anne Nystrom	358-9-793902
★ 말레이시아		853-532995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 스웨덴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파리	센터	33-1-4300-628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스위스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체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 독일					Ms. Klein Ursula	41-22-3691550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 영국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ngoc-thao.nguyen@gmx.de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j.weller@ntlworld.com
민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스코틀랜드		
★ 그리스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오세아니아 ***		
★ 네덜란드				★ 호주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 헝가리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Lux Tamas	36-304273364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s. Dora Seres	36-1379-1924		마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아일랜드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 노르웨이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 폴란드				퍼스	센터	61-8-9242-1189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포르투갈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뉴질랜드		
★ 러시아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 스페인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멜스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s. Lidia Kong	34-91-5470366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